

OCI, 투명경영대상 수상

OCI(대표 백우석)는 6월28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한국회계학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 주최로 열린 2012 투명경영대상 시상식에서 최고의 영예인 대상을 받았다.

한국회계학회는 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1997년부터 매년 모든 상장기업에 회계투명성 지수를 부여한 후 상위기업에 투명경영상을 주고 있으며 2012년에는 상장기업 1822곳이 심사대상이었다.

1976년 기업공개를 한 OCI는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감사위원회 및 이사회를 운영으로 투명한 기업지배구조를 확립하고 내부통제제도를 통해 자체적인 회계시스템을 운영했다고 평가받았다.

백우석 사장은 “창립 이래 투명경영을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삼아왔다”며 “주주, 고객, 임직원 및 협력기업 관계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신뢰와 만족을 주기 위해 윤리경영을 더욱 강화할 것”이라고 말했다.

<화학저널 2012/06/29>